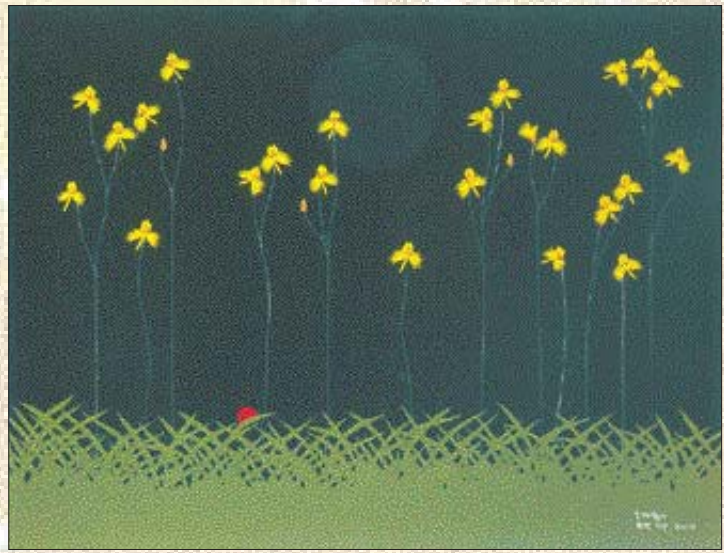


'해오라비꽃' 서울서 만개

서양화가 우수종씨 '메이저 화랑' 진화랑 초대전

언제부터가 서양화가 우수종(사진) 씨에겐 '해오라비꽃 작가'라는 꼬리표가 붙었다. 지난 2005년 해오라비꽃을 주제로 그린 전시회를 성황리에 마친 후부터다. 그 이전까지만 해도 지역에서 해오라비꽃을 캔버스에 담아낸 작가가 없었기 때문에 해오라비꽃 그림은 단순히 그의 트레이드마크가 돼버렸다.



'달과 해오라비'

그로부터 3년후, 유씨는 또한번 완숙해진 미학의 꽃망울을 터뜨린다. 그것도 국내에서 내로라하는 갤러리 가운데 하나인 서울 진화랑(21~31일)의 초대로 자신의 분신과 같은 해오라비꽃의 향

기 시작한 것은 20년 전부터. 우연한 기회에 이 꽃을 접했지만 시간이 갈수록 꽃이 내뿜는 아우라에 매

국화의 공필법으로 표현한 줄기와 화면과의 극적인 색 대비효과와 그의 농후한 필적을 유감없이 보여준다. 화면아래 다소곳하게 고개를 내밀고 있는 난초들은 물감이 마르기전 속필로 그려낸 것으로, 작가의 순간적 감흥과 구성력을 짐작케 한다.

미술평론가 오광수(전 국립현대미술관 관장)씨는 "섬세한 필법은 꽃의 내면을 표상하기에 부족함이 없고, 단색 바탕에 피어오른 꽃의 자태는 황홀한 꿈의 차원을 आरो세겨 놓는다"고 평했다.

조선대 미술과 전남대 교육대학원 출신으로 20여차례의 개인전, 대한민국미술대전 심사위원과 전남도전·광주시전 초대작가 및 심사위원을 역임했다. 목우회, 한국미협 회원이며, 광주시립미술관 운영자문위원으로 활동 중이다. 문의 02-722-9207.

/오광수기자 kroh@kwangju.co.kr

사라져 가는 우리꽃 화폭에 재현 새들의 군무 보는 듯 황홀한 자태

연을 펼친다. 유씨는 3년만의 개인전인 이번 전시에서 '달과 해오라비' 연작을 선보인다. '아름다운 우리꽃 해오라비'라는 타이틀이 말해주듯, 소박하면서도 고즈넉한 자태를 뽐내는 해오라비꽃을 오롯이 화폭에 재현했다. 이전의 '금강산'이나 '안식' 연작과 비교해보면 짐짓 표현대상이 자연의 풍광에서 해오라비꽃으로 제한된 것 같은 느낌이 들지만, 평온하면서도 명상적인 회화의 세계를 추구한 기초는 그대로이다.

그가 해오라비꽃에 애정을 쏟기

료돼 그림의 테마로까지 끌어들이게 됐다고 한다. 유씨는 "일본에서는 이 꽃이 자기네 땅에서만 자생한다고 주장하는데, 정작 원산지인 우리나라에서는 멸종위기에 놓여 있어 안타까웠다"고 말했다. "설백색의 해오라비꽃을 보고 있으면 마치 해오라기가 날개를 활짝 펴고 날아오르는 듯해 그림으로 남기지 않을 수 없었다"는 것이다. 검정과 녹색, 보라 등 매우 감각적인 화면위에 살포시 얹은 해오라비꽃들이 새들의 군무를 보는 듯한 황홀함을 자아낸다. 특히 한

옛 시립미술관 활용 방안 1년 간격론 결국 또 전시장

1년 넘게 방치된 옛 광주시립미술관이 지금까지 논의 과정을 백지화하고 전시관 용도로 활용방안을 잠정 확정했다.

하지만 중형극장이나 민간 예술단체의 연습실 공간 활용을 건의했던 공연계가 옛 전남도지사 공관에 이어 미술관까지 전시장으로 활용된다는 점에 불만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어 진행 과정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예산확보 난항 깨드 수정
지난 1992년 광주시 북구 운암동에 준공된 미술관은 지상 2층, 지하 3층 연건평 4천889㎡(1천 479평) 규모로 시립미술관이 이전해가면서 광주문화예술회관이 관리를 맡고 있는 상태다.

광주시는 지난해 9월 광주시립극단 등 시립예술단체들의 연습실, 소품실 등과 광주예술 산하 단체 사무실, 임용공직간담회 등을 입주시킬 계획을 짰었지만 23억원에 이르는 예산을 확보하지 못해 사업이 유보된 상태였다.

활용 방안 확정이 늦어지자 공연계에서는 광주문화예술회관 대안이 하늘의 별 따기인 점을 감안, 다양한 작품을 전시관 용도로 활용키로 잠정 결정을 했다. 또 풀뿌리 문화 발전을 위해 민간·청소년 예술단체들의 연습장 등 공연 문화 활성화를 위한 다양

"문화 인프라 미술 분야 편중 지나쳐" 공연장 등 활용 물거품...공연계 불만



1년 간 방치됐던 옛 광주시립미술관이 개보수 작업을 거쳐 전시관으로 활용될 전망이다.

한 활용 방안을 건의해왔다.

시는 지난 8월 광주문화예술회관 담당자 등이 참여하는 '구시립미술관 활용 TF' 팀을 구성, 논의 결과 미술관을 전시관 용도로 활용키로 잠정 결정했다. 시는 모두 13억원의 예산을 투입, 간단한 보수 작업을 거친 뒤 미술관을 컨벤션 개념이 가미된 전시장으로 활용하고 일부 시립단체를 입주

시킬 복안이다.

운영은 광주시립미술관측이 맡는 방안을 추진중이지만 미술관측은 최근 서울에 갤러리를 오픈하는 등 인력이 부족해 운영에 난색을 표하고 있다.

▲"전당 개관 공연장 송통 트릴 것" 미술관 활용 방안에 관심을 갖고 있던 지역 공연계는 1년여 넘게 논의

가 진행되다 결국은 전시장으로 이용된다는 사실에 허탈해 하는 분위기가

다. 시가 지난해 180억원의 예산을 들여 미술관을 개관하고 올 8월에는 서울에 지역 작가들을 위한 '갤러리 라이트'를 오픈하는 등 미술 인프라 구축에는 의욕적이면서 공연계는 외면하고 있다는 불만 때문이다.

특히 지난 9월부터 옛 전남도지사 공관을 리모델링해 광주시립미술관이 위탁운영중인 상록전시관도 당초 운영 결과에 따라 국악 공연장으로 활용 방안이 논의되다 결국 미술관으로 용도가 변경된 적이 있어 공연계 불만은 더욱 높은 상태다.

지역의 공연계 인사는 "문화 인프라 등 현재 시의 정책이 미술 쪽으로 지나치게 편중돼 있어 불만이 높는데 또 다시 전시관이 들어선다는 것은 말이 안된다"며 "공연 문화가 자리잡을 수 있도록 시의 균형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광주시 관계자는 "예산이 많이 들어 전면적인 리모델링은 불가능하다는 판단을 내렸다"며 "공연계의 요구 사항은 알지만 아시아문화전당 등이 들어서면 공연장 문제는 어느 정도 송통이 트릴 것"이라고 말했다.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정경래씨 서울·광주 오가며 개인전



'동원'

한국화의 정서와 서양화 기법의 조화를 추구하는 정경래씨가 서울과 광주를 오가며 잇따라 전시회를 연다. 정씨는 22일까지 광주신세계갤러리, 오는 29일~11월4일 서울 인사동 광주시립미술관의 갤러리 라이트에서 각각 개인전을 갖는다.

이번 전시에서 정씨는 '창'을 주제로 민족문화사학회와 한국작가회의의 민족문화연구소가 공동으로 '임화 탄생 100주년 기념 학술대회'를 개최한다.

'숨결'은 고가구에 큰 꽃잎을 그려 넣은 작품인데, 꽃잎에 허리가 굽은 할머니의 모습을 살짝 끼워넣어 아기자기한 묘미를 살렸다. 또 산길과 염전 등을 형상화한 작품들도 잔잔한 아름다움을 선사한다.

홍익대학교 미술대학 동양화과를 졸업한 정씨는 소나무회전, 월드컵 기념 한일교류전, 운주사 천불천탑전 등의 전시에 참여했다. 문의 062-360-1630. /오광수기자 kroh@

한일 사진 문화 교류전 ▶ 광주시청 1층



진춘호 작 '설원'

한국과 일본을 오가며 교류전을 열고 있는 한일자연사진가회(회장 진춘호)가 오는 20~24일까지 광주시청 1층에서 '제27회 한일 사진 문화 교류전'을 연다.

이번 전시에는 고해주, 구영웅, 김복영, 박인숙, 양숙자, 노종선, 조종식, 박정수, 김용복, 백학기, 서현정 씨 등 한국회원 12명과 전성립씨 등 일본 회원 16명이 참여한다.

한국작가들은 무등산, 지리산, 순천만 등지의 사계를 카메라 앵글에 담았고 일본작가들은 후지산, 북해도

의 설경 등을 선보인다. 김용복씨는 남도의 넉넉한 가을 풍경을 순간 포착한 '만추'를, 양숙자씨는 빛의 환상적인 움직임을 안장된 구도에 담은 '빛의 축제'를 각각 전시

한다. 한편 지난 1991년 결성된 한일자연사진가회는 해마다 1~2차례 교류전을 통해 가깝고도 먼 관계인 한일간의 자연 풍광을 양국에 소개하고 있다. 이에 앞서 지난달 2~7일까지 일본 오사카 시립미술관에서 동명의 전시회를 열어 호평을 얻었다. 문의 062-263-6535. /오광수기자 kroh@kwangju.co.kr

임화 탄생 100주년 재조명 활발



명출판)도 이달 말 나올 예정이다.

이와 함께 17~18일에는 숭실대에서 민족문화사학회와 한국작가회의의 민족문화연구소가 공동으로 '임화 탄생 100주년 기념 학술대회'를 개최한다. /연필뉴스

올해로 탄생 100주년을 맞은 시인 겸 비평가 임화(사진·1908~1953)를 재조명하는 작업이 활발하다. 시 '우리 오빠의 화로' 등을 남긴 문인 임화는 월북과 북한에서의 숙청 이후 남북 양쪽의 문학사에서 동시에 추방된 채 그동안 관련 연구는 물론이고 작품 정리조차 제대로 이뤄지지 못한 상태였다. 먼저 그의 이름을 딴 문학상이 제

정대 내년부터 본격적인 시상에 들어간다. 임화문학상 운영위원회(위원장 염무웅)는 "임화의 문학사적 역할에 걸맞은 명예를 부각하기 위해, 또 그의 문학적 열정을 상기하고 현재적 계승을 모색하기 위해 문학상을 제정기로 했다"며 "무엇보다 임화의 문학정신과 실천활동에 근거해 수상자를 선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시인으로서도 문학평론가로서도,

별빙시대 최고의 유망지적중
우리농산물 지킴이
농산물품질관리사
현재 상담 접수중 -주말반-
국가공인 5회시험
- 초기차격으로 최고의 성공가능
- 농산물품질관리법 공무원직과 함께
고용사이에 농산물 지킴이
▶ 시험 : 11월 22일 / 2월 2일 22일
수강료 국가 지원
교육보험 가입자 수강료의 80% 환급
4명당 선착순 초기차격 혜택
자격취득자 100%전원 취업완료!!
전남고시학원
전남여고건너편 ☎(062)236-2465

프랑스 원목가구 50%
이테리 앤틱, 클래식가구 50%
CABELO 가구 전문점
☎ 226-7565-77